

# 인터넷/게임

## 카카오 결제 시장 진출 영향 분석

### 비중확대 (유지)

공영규 ☎ 02-3772-1527  
✉ jxlove1983@shinhan.com

손승우 ☎ 02-3772-1565  
✉ swson85@shinhan.com

- ◆ 카카오 결제 서비스 진출은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진화를 위한 포석
- ◆ 카카오 결제가 휴대폰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 하반기 결제 한도 상향 가능성 높음, KG모빌리언스의 수혜 예상

### 카카오 결제 서비스 진출은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진화를 위한 포석

카카오는 7월 29일 LG CNS의 엠페이 결제 기반 신용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시행을 발표했다. 간편 결제는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결제 대행 보다는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진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의미가 있다. 간편 결제는 3분기 중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카카오 내 강력한 쇼핑 플랫폼이 구축되면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카카오 결제가 휴대폰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카카오의 간편 결제 서비스 진출 뉴스가 나오자 국내 전자 결제주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1)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 시장은 주요 소비자층이 다르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30~40대인 반면 휴대폰 결제의 주 이용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은 20~30대가 많다. 또한 1만원 내외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이다.

2) 휴대폰 결제는 편리성과 보안성이 타 결제 수단 대비 높다. 간편 결제는 편리성은 높지만 보안상 문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간편 결제가 개인 정보 유출에 민감한 소비자층이 많은 국내 시장을 독점하기는 쉽지 않다.

3) 휴대폰 결제는 국내 시장에만 존재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인증 번호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외 특별한 결제 수단이 없었던 해외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검증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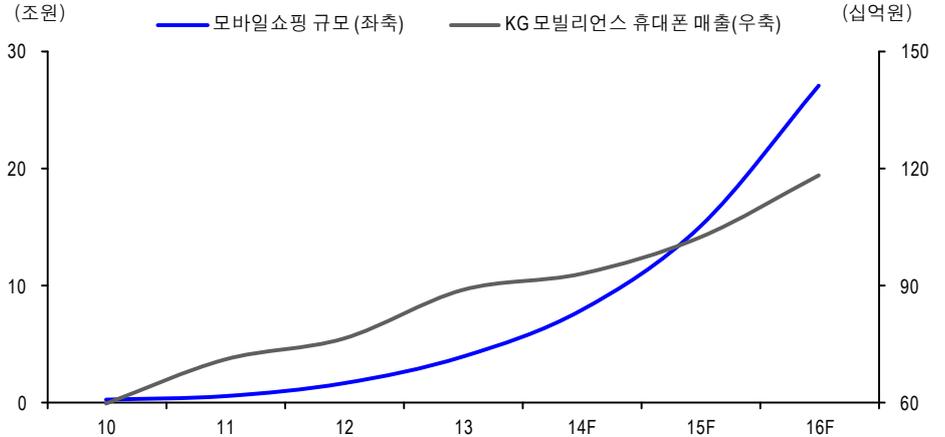
### 하반기 결제 한도 상향 가능성 높음, KG모빌리언스의 수혜 예상

경쟁 우려감으로 KG모빌리언스(046440)의 주가는 이틀 동안 20% 이상 급락했다. 소셜커머스(쿠팡, 티몬)와 홈쇼핑(CJ, GS)으로 거래처가 확대되는 3분기 영업이익은 73억원(+56.2% YoY)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25만원 이상 결제 이용자는 사용자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거래액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결제 한도가 상향되면 거래액은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통신사와 협의 중으로 연내 결제 한도 상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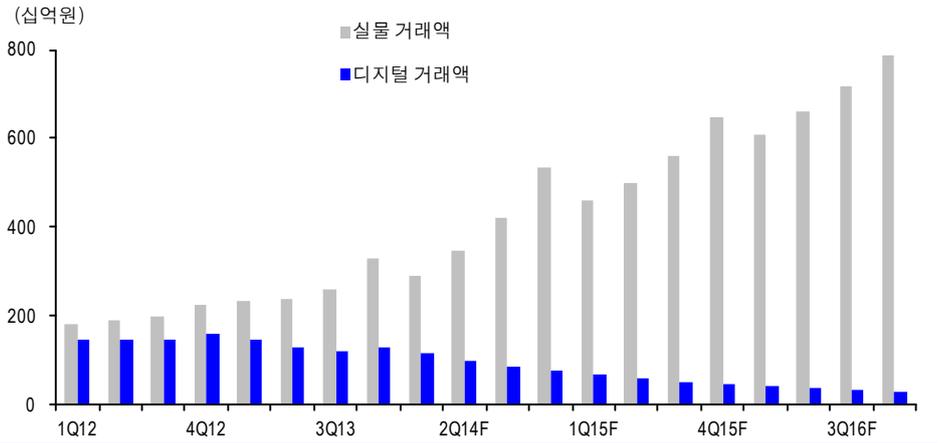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은 2016년 27조원(CAGR 100%)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주가의 2014년 PER(주가수익비율)은 10배에 불과하다. 불확실한 경쟁 우려감 보다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 vs. KG모빌리언스 휴대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셜커머스 3사, 신한금융투자 추정

KG 모빌리언스의 실물, 디지털 거래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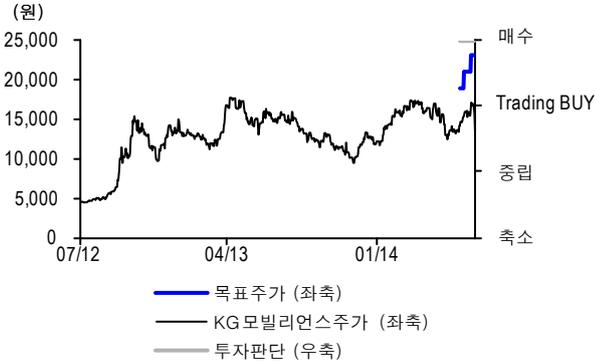
KG 모빌리언스의 분기별 영업실적 추정

(십억원)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P	3Q14F	4Q14F	1Q15F	2Q15F	3Q15F	4Q15F	13	14F	15F
매출액	27.3	27.8	28.0	35.6	32.1	34.4	37.7	42.9	40.3	42.3	44.7	48.6	118.6	147.2	176.0
증감률 (% YoY)	27.7	22.4	18.5	30.1	17.9	23.9	34.5	20.6	25.5	22.8	18.8	13.3	24.9	24.0	19.6
결제부문 사업	25.7	25.1	25.6	30.0	26.0	26.8	28.5	31.9	29.0	30.6	32.7	36.2	106.3	113.3	128.6
인증부문 사업	1.6	2.7	2.4	5.6	6.1	7.6	9.2	11.0	11.3	11.7	12.0	12.4	12.3	33.9	47.4
증감률 (% YoY)															
결제부문 사업	25.5	14.2	12.4	12.2	1.4	7.0	11.2	6.4	11.4	14.3	14.8	13.5	15.6	6.7	13.5
인증부문 사업	77.9	257.8	184.0	783.8	284.4	179.1	284.8	96.1	85.4	52.8	31.1	12.6	296.7	175.6	39.8
영업이익	4.7	5.0	4.7	6.1	6.1	6.0	7.3	7.8	7.7	8.3	9.3	10.4	20.4	27.3	35.7
영업이익률 (%)	17.2	17.7	16.7	17.1	19.1	17.5	19.4	18.2	19.1	19.7	20.7	21.4	17.2	18.5	20.3
증감률 (% YoY)	23.3	48.1	4.8	75.2	35.0	19.8	56.2	27.9	25.2	38.1	27.0	33.0	34.0	32.9	36.6
당기순이익	6.0	2.8	2.8	(2.7)	4.1	5.1	6.1	6.5	6.6	7.0	7.6	8.5	8.9	21.8	29.7
순이익률 (%)	21.9	10.2	10.2	(7.7)	12.7	14.9	16.2	15.2	16.4	16.6	16.9	17.5	7.5	14.8	16.9
증감률 (% YoY)	30.6	(8.7)	(30.9)	(169.6)	(31.4)	81.2	113.9	(339.6)	61.8	36.9	24.3	30.3	(43.2)	144.8	36.1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K-IFRS 연결 기준, \* 2Q14 당기순이익은 신한 추정치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 KG모빌리언스 (04644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2014년 07월 02일	매수	19,000
2014년 07월 10일	매수	21,000
2014년 07월 25일	매수	23,000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 공영규, 손승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 투자등급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

투자등급	비중확대	중립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5% 이상</li> <li>◆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0% ~ +15%</li> <li>◆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5% ~ 0%</li> <li>◆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5%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li> </ul>